Orchestral Suites Nos. 1–4, BWV 1066–1069

- □□—

정보

개요
곡명: Orchestral Suites Nos. 1–4, BWV 1066–1069
작곡가: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장르: 프랑스풍 Ouverture 와 춤곡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모음곡
전곡 소요 시간: 약 80–95분. 반복과 템포에 따라 개별 모음곡의 길이가 달라진다.
초연: 네 곡 각각의 최초 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이프치히 Collegium Musicum과의 연관성은
가능한 후대 연주 환경으로 논의된다.
근대 보급: 19세기 Bach-Gesellschaft Ausgabe 이후 본격화

BWV 1066부터 1069까지의 번호는 오늘날 한 묶음으로 읽히지만, Bach가 처음부터 네 곡을 하나의 세트로 계획했다는 증거는 없다. 네 작품은 모두 프랑스풍 서곡으로 시작하고 춤곡을 뒤에 배치하지만 , 성립 추정과 자료 전승, 악기 구성은 서로 다르다. 공통 장르 문법을 먼저 확인하면 C장조 1번, b단조 2번, D장조 3번과 4 번의 개별 성격이 분명해진다 .

Ouverture라는 장르와 자료의 한계
Bach 시대 독일어권에서 Ouverture 는 첫 악장의 이름인 동시에, 프랑스풍 서곡과 여러 춤곡을 묶은 관현악
작품을 가리키기도 했다. 첫 서곡은 느리고 점음표가 강조된 장중한 부분과 빠른 대위법적 부분을 결합한다. 뒤따르는 Courante, Gavotte, Forlane, Bourrée, Menuet, Passepied, Polonaise, Gigue 등은 궁정 춤의 박자와 성격을 빌리지만, 실제 무도회 반주라기보다 연주회용으로 양식화된 음악이다.

네 곡의 자필 총보가 모두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베껴진 파트의 날짜는 그 파트가
만들어진 시기를 알려 줄 뿐, 음악이 처음 작곡된 때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쾨텐과 바이마르의 궁정
음악이 라이프치히의 세속 연주 환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Zimmermann 커피하우스의 Collegium Musicum에서 네 곡이 각각 처음 연주되었다는 직접 기록은 없다.

네 모음곡의 성립과 소리

1번 C장조, BWV 1066

자료와 성립 추정: 1717–1725년 사이의 성립설이 있으며, 1723–1724년 라이프치히 파트가 중요한 전승 자료로 남아 있다. 이 파트가 새 작곡인지 쾨텐 시기 작품의 사본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편성: 오보에 2, 바순, 현악, 통주저음.
구성: Ouverture, Courante, Gavotte I/II, Forlane, Menuet I/II, Bourrée I/II, Passepied I/II.

느린 점음표 서곡은 장중한 문을 열고, 빠른 부분에서는 오보에와 바순이 현악을 겹치거나 독립적인 선율로 응답한다. 뒤의 춤곡은 두 곡씩 짝을 이루는 배열이 많아, 한 춤의 몸짓이 다음 춤에서 다른 음역과 밀도로 돌아온다. Forlane 처럼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춤과 프랑스풍 Gavotte, Menuet, Passepied 가 함께 놓이면서 양식의 출처가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1번은 네 곡 가운데 목관과 현악의 균형이 가장 지속적으로 들리는 모음곡이다 . 정확한 궁정 행사나 최초 공연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보에 두 대와 바순이 현악과 작은 협주곡처럼 대화하는 방식은 춤곡 묶음에 연주회적 집중을 부여한다.

2번 b단조, BWV 1067
자료와 성립 추정: 1738–1739년 라이프치히의 자필 ·필사 파트가 핵심이다. Bach가 traverso와 비올라 파트를 직접 베꼈으며, 이 시기가 작품의 최초 작곡 시기인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편성: 플루트 트라베르소 , 현악, 통주저음.
구성: Ouverture, Rondeau, Sarabande, Bourrée I/II, Polonaise 와 Double, Menuet, Badinerie.

플루트는 서곡의 대화부터 마지막 Badinerie 의 빠른 음형까지 거의 독주자처럼 전면에 선다. 프랑스풍
점음표와 춤곡 배열 위에 이탈리아 협주곡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파트가 놓이지만, 현악과 통주저음의 대위가 독주를 계속 감싼다. Polonaise 와 그 Double 은 같은 춤의 골격을 다른 장식과 밀도로 펼치는 부분이다.

마지막 Badinerie 의 가벼운 속도는 앞선 무거운 b단조 서곡과 대비된다. 이 대비를 앞선 악장을 풍자하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음곡 전체가 장중함에서 민첩함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Buffardin이 초대 플루트 연주자였다는 설과 Polonaise의 대중 선율 모델은 보조 가설이며, 확인된 초연 명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3번 D장조, BWV 1068

자료와 성립 추정: 성립 시기와 최초 공연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자필 파트는 약 1730년 무렵으로 분류되며, 쾨텐 또는 바이마르의 축제 음악이 나중에 라이프치히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된다. 편성: 널리 연주되는 판본은 트럼펫 3, 팀파니, 오보에 2, 현악, 통주저음을 포함한다. 현악 중심의 관악
생략판도 가능한 전승으로 남아 있다.
구성: Ouverture, Air, Gavotte I/II, Bourrée, Gigue.

첫 서곡의 빠른 부분에서는 제 1바이올린이 예상보다 독주적으로 앞으로 나오며, 축제적 금관이 항상 모든 층을 덮지는 않는다. Air 에서는 트럼펫과 팀파니가 쉬고 현악과 통주저음이 긴 호흡의 선율을 펼친다. 이 느린 악장이 후대 편곡으로 독립적인 명성을 얻었어도, 원래는 D장조 서곡과 춤곡 사이에서 음향의 밀도를 바꾸는 대조로 기능한다.

현재 표준으로 널리 알려진 트럼펫과 팀파니 편성은 작품의 모든 시기에 동일했다고 볼 수 없다. Netherlands Bach Society가 소개하는 현악 중심의 역사적 접근과 약 1730년 무렵 관악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은 서로 다른 자료 층을 가리킨다. 따라서 Air 를 “Air on the G string”이라는 후대 편곡 제목과 혼동하지 않고, 모음곡
전체 안에서 듣는다.

4번 D장조, BWV 1069

자료와 성립 추정: 바이마르 또는 쾨텐 시기의 초기 작품이라는 가설이 있다. 서곡이 1725년 칸타타 Unser Mund sei voll Lachens, BWV 110의 Sinfonia 에 재사용되면서 트럼펫과 팀파니가 더해졌다는 설명이 전한다.
편성: 현대 표준은 트럼펫 3, 팀파니, 오보에 3, 바순, 현악, 통주저음이다 . 트럼펫과 팀파니를 생략한 버전도 논의된다.
구성: Ouverture, Bourrée I/II, Gavotte, Menuet I/II, Réjouissance.

4번은 알레망드와 쿠랑트를 거치지 않고 부레, 가보트, 미뉴에트, Réjouissance 로 곧장 축제의 후반부를
향한다. 세 대의 오보에와 바순은 목관 합주의 밀도를 높이고, D장조의 트럼펫과 팀파니는 의전적인 외곽을 만든다. 마지막 Réjouissance 는 프랑스어로 “기쁨 ”을 뜻하며, 전형적인 춤곡 명칭이라기보다 모음곡의
환희에 찬 결말을 표시한다.

Bach Digital에 남은 Frühfassung 파트는 1740–1759년의 불완전한 전승으로, 일부 그룹에 트럼펫 합주와
제 3오보에가 빠져 있다. 이 자료는 초기 편성 논쟁을 보여 주지만, Bach가 처음부터 금관을 쓰지 않았다는
단독 증거는 아니다. 칸타타 재사용, 불완전한 파트, 현대 표준 편성을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로 분리해야 한다.

네 곡을 함께 들을 때의 공통점과 차이
모든 모음곡에서 Ouverture 는 장중한 점음표와 빠른 대위법을 결합해 공적 공간을 만든다. 그러나 1번의
오보에 ·바순 대화, 2번의 트라베르소 독주, 3번의 Air 가 만드는 현악의 정지, 4번의 금관 ·타악과
Réjouissance 는 같은 문법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춤곡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 어느 악기가 전면에
서고 어느 순간 음향이 비워지는지를 따라갈 때 네 작품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

번호 체계가 후대의 편집과 전승에서 굳어졌다는 사실은 음악의 공통점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각 모음곡이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면, Bach가 프랑스풍 장르를 한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편성 ·조성 ·춤 배열에 적용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쾨텐 ·바이마르 궁정과 라이프치히 Collegium Musicum의 연주 환경은 이 이동을 설명하는 배경이지만 , 네 곡의 최초 공연 장소를 대신하는 증거는 아니다.

출판과 현대 판본
19세기 Bach-Gesellschaft Ausgabe 는 네 모음곡을 근대 악보 시장과 공연 레퍼토리에 본격적으로 보급했다. Bärenreiter의 현대판은 1967년 신 바흐 전집의 비평 작업에 기반하며, 자필 ·필사 파트와 변이 독법을 함께 검토한다. 이런 Urtext는 현재의 연주 기준을 제공하지만 , 편집자의 독법을 Bach의 단일한 원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연주 시간은 반복, 템포, 편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곡을 약 80–95분으로 잡는 범위는 네 모음곡을 각각 18–25 분 안팎으로 연주하는 관행과 맞물리며, 특정 음반이나 판본의 고정값은 아니다. 특히 3번과 4번의 금관 포함 여부, 2번의 트라베르소와 현대 플루트 선택은 같은 악보 이름 아래에서도 다른 음향을 만든다.

주요 자료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1066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1067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1068
Netherlands Bach Society, BWV 1069
Bärenreiter, Four Overtures, BWV 1066–1069 Bärenreiter, BWV 1066 비평판 서문 Bärenreiter, BWV 1067 비평판 서문
Bach Digital, BWV 1066 자료
Bach Digital, BWV 1067 자료
Bach Digital, BWV 1068 자료
Bach Digital, BWV 1069 초기 판본
Bach.de, 라이프치히 Collegium Musicum 맥락 IMSLP, BWV 1069